



호랑가시나무 차고갤러리에서 진행 중인 분더카머의 '코끼리의 방' 전시 전경

분더카머 그룹전 '코끼리의 방', 내달 2일까지 호랑가시나무 차고갤러리

누구에게나 처음은 존재한다. 바쁜 활동 속에서 초심을 잊기 쉬운 예술가들도 예외는 아니다. 지역에서 한창 활발하게 작업 중인 여섯 명의 작가가 '분더카머(Wunderkammer)'라는 이름으로 팀을 꾸리고,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와 다음을 잇는 첫 발걸음을 뒀다.

호기심의 방, 놀라운 것을 모아둔 공간을 뜻하는 독일어 '분더카머'처럼, 한때 내부에 응축돼 있던 열정과 창조의 에너지를 다시 꺼내 보아줬다는 의지가 담겼다.

분더카머의 그룹전 '코끼리의 방(The Elephant's Room)'이 오는 11월2일까지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차고갤러리(남구 제중로47번길 7)에서 열린다.

참여 작가는 김자이, 유지원, 이세현, 이인성, 임용현, 정승원.

이번 전시가 특별한 것은 '최근작'이 아니라 대학 시절 제작했던 초기작들을 한자리에 모았다는 점이다.

전시 주제 속 '코끼리'는 본능적 욕망과 창조의 에너지를, '방'은 그 욕망이 밖으로 뻗지 못한 채 머물던 미완의 시간을 가리킨다. 전시는 곧, 학창시절의 거칠고 순수한 창작 충동을 '지금-여기'의 시선으로 재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작품의 결을 따라가면 각자의 현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자연스레 드러난다.

지난 몇 년간 '휴식' 시리즈로 다양한 설치를

6인 작가가 꺼내놓은 창작의 출발점

'지금-여기' 시선으로 '나'의 원형 살펴

선보여온 김자이는 코끼리 형상의 섬을 담아낸 디지털 프린트 작업을 내놓아 전시 주제와 맞닿은 상징을 담아냈다.

알록달록한 판화 작업으로 잘 알려진 정승원은 색을 한층 덜어낸 초기 판화 그리고 스케치를 통해 오늘의 작업으로 이어지는 시작점을 보여준다.

미디어의 양면성을 짚어온 임용현은 초기 영상 작업을 통해 지금의 작업 세계가 형성된 단초를 엿볼 수 있게 한다.

건축적 요소를 토대로 설치 작업을 이어온 유지원은 사람의 형상을 표현한 조형 작품으로, 초기 작업 특유의 솔직한 감각을 드러낸다.

화면 속 주황색 점으로 다양한 의미를 보여주는 이인성의 초기작은 거칠고 생생한 표현이 인상적이며, 현재와는 또다른 분위기를 전한다.

이세현은 그의 사진 작업의 출발점이라 할 만한, 일상 속 모습을 담은 두 점의 사진을 통해 작가의 시선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보여준다.

그룹명인 '분더카머'와 같이 각자의 호기심과 발견을 모아 놓은 방을 열어 관객 앞에 내어놓는 방식이다.



김자이작 'Elephant island'



이인성작 'Expression'

참여 작가들은 "그때의 작품은 미완의 결과물이라, 지금의 나를 형성한 원형이었다"고 이야기한다.

이들의 발언처럼, 이번 전시는 회고보다는 새로운 출발선에 가깝다. 젊은 날의 열정을 다시 불러온 여섯 작가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최명진 기자

국립남도국악원, 내달 1일까지 '2026 토요상설공연' 출연진 공모

국립남도국악원이 '2026 토요상설공연'에 출연할 공연 단체 및 개인을 공개 모집한다.

토요상설공연은 2004년부터 이어온 남도국악원의 대표 상설무대다. 공연은 43석 규모의 남도국악원 전악당에서 열리며, 선정된 단체와 개인은 2026년 3월부터 11월까지 정해진 일

정에 따라 1회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공모는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공연 단체를 대상으로 한 '일반공모'와, 지역 예술인들에게 역량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는 '개인 공모' 두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공연료는 작품 성격에 따라 '일반공모'는 500

만원~1천만원, '개인 공모'는 200~800만원 수준으로 지급된다. 단, 판소리 독창 및 기악 독주의 경우 200~400만원이 책정됐다.

접수 기간은 오는 11월1일까지다. 참가를 원하는 단체나 개인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담당자 이메일(gok1236@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최명진 기자

황순칠·손호근 2인전...오늘부터 무등갤러리

서예·회화로 선보이는 우정의 미학



▲황순칠작 '덕'

서예와 회화, 두 예술의 결이 오랜 벗의 인연으로 이어진다.

고담 황순칠 작가와 공전 손호근 선생이 함께 하는 '옛 서예 벗 2인전'이 30일부터 11월5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열린다.

황순칠 작가는 서양화가로 알려져 있지만, 서예에도 깊은 관심을 두고 꾸준히 활동해왔다. 그는 고등학교에 들어서며 본격적으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다. 이후 연진미술원에서는 추사 김정희의 필법을, 금봉 박행보 선생에게서 서예의 깊이를 배웠다. 서양화를 전공하면서도 오서(五書)를 독학으로 익히며 예술의 경계를 확장해왔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 '덕', '화평', '가화상' 등 복을 기원하는 의미의 글자와 더불어 중국 고

전 시인들의 구절을 서예로 담아낸 작품들을 선보인다. 자신의 회화 작품도 함께 전시한다.

공전 손호근 선생은 중학생 시절부터 글씨를 연마해온 서예가다. 근원 구철우, 강암 송성룡 선생에게 사사했으며 문인화가 회재 문장호, 치려 허의득 선생에게서도 그림을 배웠다. 전시에는 자유로운 필치로 완성한 서예 작품뿐 아니라 추상적인 회화 작업도 내건다. /최명진 기자



▶손호근작 '가을'

“ACC에 3m 대형 ‘잔망루피’ 떴다”

문화정보원·하늘마당서 포토존 운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 홍보 마케팅 프로젝트로 '잔망루피 캐릭터 포토존'을 선보인다.

'잔망루피'는 ㈜아이코닉스가 기획·제작한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귀여운 외모와 솔직하고 엉뚱한 성격이 특징이다. 누리 소통망(SNS)의 밈(meme)과 이모티콘 등으로 재가공되며 최근 남녀노소 모두에게 '현실 공감형 캐릭터'로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

ACC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친근하고 감성적인 공간을 ACC 내에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유쾌한 관람 경험을 제공할 방침이다.

'잔망루피 캐릭터 포토존'은 ▲문화정보원 로비(12월26일까지) ▲하늘마당(내년 4월26일까지) 두 곳에 설치된다.

문화정보원 로비의 잔망루피는 높이 3m 크기의 에어 발룬 형태로 실내 관람객들이 전시 관람 전후 편하게 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하늘마당 상부 벤치에는 각 800mm, 900mm 높이의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 잔망루피 조형물 2개가 설치된다. ACC 대표 야외 공간



인 하늘마당 일대를 잔망루피와 함께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 명소로 운영한다.

올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을 대상으로 ACC 방문 인증 이벤트도 진행한다.

수능 시험 이후, ACC 전시를 관람하고 잔망루피 포토존을 방문해 촬영한 사진을 개인 누리 소통망(SNS)에 게재하면 기념품을 증정한다.

이밖에도 ACC 인근 카페점마 파랑새안과 점에서는 잔망루피 굿즈를 판매하는 등 다양한 캐릭터 상품도 만나볼 수 있다. /최명진 기자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 기후·생명 회복 위한 <환경주일 묵회서신·공동기도문> 채택
- 창조질서 회복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캠페인 확산
- 기후난민공동체 지원 사업 전개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생태보존 교육 실시

CBS, (사)푸른아시아, 한국교회 15개 주요 교단, 환경부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출범' - 2022. 4. 26

CBS Media Group